

1898년 양림동 토지 첫 매입...수피아여학교·제중병원 건립

(現 기독교병원)



광주지역 최초 사립학교인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 2월1일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이 부지는 당연히 미국인 선교사가 제공했다.



미국인선교사가 1910년 2월 광주에 건립한 제중병원 전경. 이 병원이 후일 기독교병원이 된다. 이들은 또 1년 뒤인 1911년 2월 광주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지었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7. 美 선교사들의 광주 진출사

■ 1898년부터 1907년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매입한 광주면 양림리 토지

주소	지번·지목	지적(평)	지가(원)	평가액	소유주주소씨명	매수연도
광주면	205(대)	213	170.40	341	순천군 순천면 매곡리 존 페어만 브레스턴	1907년
	217(대)	83	49.80	99		
	248(대)	43	21.50	43		
	251(대)	2,813	2,250.40	4,500		
	275(대)	107	26.75	53		
	289(대)	403	161.20	323		
	286(답)	44	22	44		
	197(전)	21,627	4,325.40	8,651		
	199(전)	171	59.85	119		
	249(전)	66	23.10	47		
양림리	263(전)	4,861	1,701.35	3,402	광주군 광주면양림리 조지 오웬	1906년
	270(전)	280	140	280		
	580(전)	6,198	1,239.20	2,479		
	288(전)	2,259	564.75	1,129		
	582(전)	1,203	240.60	481		
	581(묘지)	631	-	50		
	6(임야)	9반(反)709	-	200		
	86(대)	10,032	7,022.40	14,045		
	118(대)	1,641	820.50	2,000		
	128(대)	70	35	70		
목포부 양동(陽洞) J.S 니스벳	86(대)	34	23.80	50	목포부 양동(陽洞) J.S 니스벳	1898년
	86(대)	34	23.80	50		1898년
	53(잡종지)	21	8.40	17		1900년

광주천 좌안에 자리한 양림리에 정착한 미국선교사들은 광주읍성과 비교적 먼 곳에 있었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일제의 '압박'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우산' 밑으로 광주의 지식인들이 몰려든 것은 당연했다. 당대의 부호였던 정락교, 최상현 등은 물론 오방 최홍종 목사, 정윤성 등도 양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 미국선교사 중 클레멘트 C. 오웬의 이름을 빌어 지은 오웬기념각에서는 서술 퍼린 일본 경찰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강연회, 가극대회 등 대중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마치 '해방구'처럼 일제강점기 지친 지역민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위로받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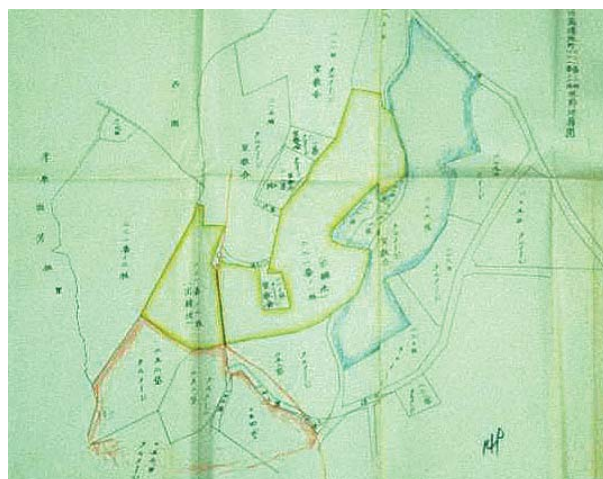
이번 시리즈 취재진은 미국선교사들이 양림리에 터전을 잡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898년 양림리 86번지 토지 1만66평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냈다. 토지는 당시 목포부 양동에 거주하던 J.S 니스벳이 구입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함경남도 외국인 출원 양여허가처분 서류(1934)'는 미국선교사들이 광주 양림리에 언제, 무슨 과정을 거쳐 진출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또 이들이 양림동에 꾸준히 토지를 매입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갔고, 그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일제의 간섭없이 의료·교육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일제가 1934년 미국선교사들이 강제병합 전 매입·소유하고 있던 양림동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발생한 분쟁과 무마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수차례 양림동 일대 선교사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 문서는 이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3년간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98년부터 1907년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구입한 토지는 양림리 205번지 등 모두 21개 필지에 면적은 약 5만5800평에 달하고 있다(표 참조). 논·밭은 물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임야, 묘지, 잡종지 등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은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매입했다. 논란의 발단은 1933년 12월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 관리가 광주면 양림정 226번지에 거주하는 선교사 탈마지(Talpage, John Van Neste)를 찾아가 미국 예수교 남장로파 조선선교회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면 양림정 221의1 임야 5467평에 대한 조사였다. 이 관리는 같은 해 5월10일부터 1934년 9월5일까지 광주군 효천면 방림리 최홍종(당시 53세), 광주읍 양림정 48번지 홍우종(당시 60세), 광주읍 양림정 176번지 최정선, 광주군 효천면 방림리 최재익, 광주읍 양림정 김명신(당시 38세) 등 주변 증인들에게도 이 토지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해 양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청취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재단은 1925년 4월1일 기독교 및 자혜사업 종사를 취지로 광주면 양림리 562번지에 설립됐는데, 선교사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이 재단 소유로 돼 있었다. 또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1923년 12월18일 경성 주

1907년까지 총 5만6천평으로 더 넓혀

日 간섭없이 의학·교육등 서양문물 전파

담론·문화 창구로 日 치하 지역민 위로



1934년 당시 미국인 선교사와 조선총독부 간 분쟁 대상이 된 양림동 일대 지적도.

재 미국영사가 보증을 썼다.

당시 문제가 된 양림정 221의1(4157평)과 221의2(1350평)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실시조사에 나선 것은 1934년 5월14일의 일이다. 이 토지에 대해 재단 측은 1906년 당시 선교사 스와 인하트(M. L. Swinehart)와 탈마지 등이 거주했던 양림리 562번지와 577번지 국유림으로, 프레스톤(John F. Preston)이 같은 해 토지소유주 장만도에게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1910년 3월20일 광주군 부동방면 방림동 3통1호 김억너가 60년에 광주군 부동방면 임야 4932평686을 광주군 부동방면 방림동 1통3호 프레스톤에게 팔았으며 광주군 부동방면 방림동 2통1호 김윤수가 보증했다고 덧붙였다.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이장인 매도자 김억너, 명장 정학우, 광주군수 홍관유 등의 서명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를 둘러싼 선교사 재단과 조선총독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고 1934년 9월11일 특별연고삼림처분심사회로 넘어갔다. 처분심사회가 결국 "1908년 구 삼림법 시행 전 매입한 양림정 221의 1은 소유권을 인정하되 구 삼림법 시행 후인 1910년 매입한 221의2에 대해서는 연고자로 인정하

기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3년간 계속됐던 선교사와 조선총독부의 토지 분쟁도 끝이 났다.

이에 비취볼 때 당시 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의 몰랐던 지역민들은 조사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갈탈당한 사례가 속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지만 강대국 미국 영사가 보증까지 선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터에 '식민지 주민'의 사정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내 인구 및 세대 변화 자료에 따르면 1909년 광주군의 전체 세대 및 인구는 1만6590호에 7만8528명인데, 이 중 외국인 9호 27명 중 미국인이 7호 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미국인 중 선교사가 20명, 의사가 2명이었다. 이들은 1908년 2월1일 사립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를 설립해 1925년 각각 207명과 230명의 학생을 가르칠 정도로 양림리에 자리를 틀었고, 1910년 2월과 1911년 2월에는 각각 제중병원(현재 기독교병원)과 나병원을 지어 광주에 서양의학을 보급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한 한센병 수용자 시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예산 400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시설은 당시 양림리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여자수용소와 남자수용소가 있었다. 수용인원은 남자 342명, 여자 260명이었으며 1년 예산 5만원은 제중병원과 미국 신도회에서 부담했다고 적혀있다. 1928년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아 여수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아마도 이 시설이 지금의 소록도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양림동은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1921년 8월9일 오후 전북 정읍을 떠난 최원순, 강제동, 임택용 등이 송정리역을 거쳐 오웬기념각에 도착, 1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 강연은 광주예수교회, 광주학부형회, 노동공제회 광주지회 등이 주최해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양림리의 교회당은 1926년에야 신축됐다. 당시 양림리에는 기독교 신자가 다수 거주하면서 '예수촌'이라 불렸다. 이들 신자가 매주 3차례 이상 광주 시가지 내 금정(동구 금동)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불편해지자 일반신도들이 7000원의 건축비를 모아 양림동에 60여 평의 교회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흥 맛집
광주광역시
www.gju.co.kr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www.geumsoojang.com